

회의 참고자료

-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-

2016. 1. 12.

금 융 위 원 회

1 회의 배경

- 2016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금융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
 - 특히,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,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한편,
 -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위해 이미 마련된 과제의 안착과 함께 성과주의 도입 등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가는 노력을 지속
- 오늘 회의는 자본시장, 핀테크, 정책금융 등 금융 혈액 기능 강화를 위한 2016년 금융위의 주요 금융개혁 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분들을 모시고,
 -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추가 발굴·개선할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 * '금융안정' 관련 회의 (1.7(목))

2 시장동향

- 회의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, 이번 주 금융시장도 지난주에 이어 변동성이 지속되는 모습
 - * KOSPI는 1,894.8로 전주대비 하락(△22.8p, △1.2%)
 - * 원/달러 환율은 1,209.8원으로 전주대비 상승(11.7, 1.0%)
- 연초부터 다양한 대외불안요인이 발생함에 따라, 국내 금융시장의 다소간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,
 - ①주요국 대비 하락폭이 크지 않고*, ②국내 증시의 저평가 상황**과 ③주요 IB들의 전망***등을 감안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

* '16.1월중 증시 등락(%) : (韓)△3.4 (美)△6.2 (日)△7.0 (獨)△8.3 (中)△14.8

** 주요국 PBR('15말 기준) : (韓)1.0 (美)2.8 (日)1.7 (中)2.0

*** Morgan Stanly, Barclays 등, 연내 2,000p~2,200p까지 상승 전망

- 다만, 대내외 여건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, 시장안정을 위하여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할 것임
- 먼저,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24시간 시장상황을 점검토록 하고
- 국내외 투자자·신용평가사·외신 등과 소통을 강화
- 외국인 ID제도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검토하여 추진하고
-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한 비상 대응계획(contingency plan)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하겠음

3 정책 방향

(1) 금융개혁 지속 추진

- 지난 한해 금융개혁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틀을 마련했다면,
 - 올해는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 등을 통해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할 필요
-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금융서비스는 차질없이 정착·확대하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창의문화를 확립하는 한편, 자본시장 등을 통한 금융의 혈액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임
- 또한, 금융규제개혁도 금융업권의 이해와 관점이 아니라 시장과 투자자·소비자 등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

(2) 자본시장 - 국민재산 늘리기 및 기업지원 강화

- 올해 금융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늘리는 것임
- 올 3월에는 절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가 도입될 예정이며,
- 독립투자자문업 도입,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등으로 국민의 재산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음
- 아울러, 십시일반 클라우드펀딩 제도 시행, 코넥스 시장 활성화, 거래소 경쟁체제 도입 등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음

(3) 핀테크 산업 발전 및 새로운 서비스 확대

- 핀테크는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산업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개혁의 핵심 분야임
- 금년에는 빅데이터 활성화, 오픈 플랫폼(API) 구축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의 지속적 출현을 유도
- 특히,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, 영국 등에서 해외 데모데이 개최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
- 이와함께 온라인 실명확인을 은행 외 제2금융권으로 확산하고 인터넷 전문은행도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하겠음
- 소비자들이 “보험다모아”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시 불편사항도 지속 개선

(4) 정책금융 강화

- 2016년은 산은·기은 역할강화와 신보증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정책금융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“원년”으로 삼아야 할 것임
- 또한, IT·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등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당부드림

(5) 성과주의문화 확산

- 금융개혁을 체감하려면 금융권에 성과주의가 뿌리내려야 함
- ①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은 대우를 받도록 차등화하고,
- ② 보수체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평가와 인사체계,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의 개선 추진
- ③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민간으로 확산하며 노조 설득 노력 병행

(6)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시장질서 확립

-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와 금융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음
-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제재 강화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
- 금융시장내 불공정거래 행위와 회계부정을 근절하여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